

##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dbang.com/ch/9938

2015년 10월 24일(토)

한홍구 교수,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여 버려야 했다고 주장했다는 썩어빠진 종편들 왜곡 조작 공세에 시달렸다. 오늘 한겨레 고정 칼럼에 최근 일과 관련한 소회를 남겼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아이들 동요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노래가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윈 없이 나와 봤다. <티브이조선> 등 종편에서는 15분도 넘는 특집 프로그램을 여러 번 만들어 보냈으니 이걸 광고비로 환산하면 아마 수십억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실은 꼭 동요 같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순반란사건 직후 숙군 과정에서 남로당 프락치로 검거된 박정희를 그때 김창룡이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렸더라면 대통령 두 자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김창룡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란 가정을 수구언론이 '김창룡이 죽었어야 했다'로 보도한 대목이다. 저들은 인터넷에 떠 있는 동영상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를 마음대로 보도해버렸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따라쟁이가 되어 똑같은 왜곡을 일삼았는데,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몇이 확인전화 한 것 외에 수구언론에서 단 한명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정말 놀랐다.

한국 현대사가 워낙 파란만장하다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대역죄나 내란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거나 구형받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명이다.

김대중과 관련해서는 수구사이트에 "전망크(전두환)가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된 것이 김대중을 죽이지 않은 것"이라는 식의 언급이 넘쳐난다. 과연 고종이 이승만을, 전두환이 김대중을 그때 죽였더라면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런 난리가 났을까?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물음은 조각제가 <월간조선> 1989년 12월호에서도 꺼낸 바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내가 다시 꺼냈더니 난리가 났다. 1989년에 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때이지만,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최고 존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니 정말 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에이사 레이더는) 지금은 시험 1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항공기 제작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KF-X 개발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핵심 기술인 '에이사 레이더' 개발도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KBS)

○...“역사학자들이 연쇄 집필 거부 성명을 내고 학자 90%가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중도성향 유권자 다수가 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말이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7%로 찬성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 전보다 반대가 5%p 늘고 찬성이 6%p 줄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늘어났으며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반대가 6%p 늘고 찬성이 8%p 줄었다. 하루 앞서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정화 반대 52.7%, 찬성 41.7%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JTBC)

○...“나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가 녹취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총무로 있던 때에 총회에서 가스총을 들며 행패를 부리던 때 황규철 목사의 발언이었다. 서울 독산동의 한 교회. 그제 저녁 7시쯤, 황규철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박 모 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황 목사가 서류봉투에 담아둔 흥기를 꺼내 박 목사를 수차례 찌른 거다. 황 목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같은 총회였던 박 목사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진술했다. 소속 총회의 총무 선거를 앞두고 황 목사가 금품을 돌렸다는 내용을 박 목사가 외부에 알렸다는 것이다. (JTBC)

김용민의 새 책, 『살핀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가 출간됐습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01>

##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캠백팩대리운전 <http://www.facebook.com/CBH.ComeBackHome>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 [한국일보] [단독] 친일파 이해승 300억원대 재산환수 재심 포기한 법무부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 중 가장 높은 자리인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가 있다. 이해승이다. 그래서 이해승 후손들의 재산을 국가는 환수 하려고 했다. 그런데 후손은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해 2건은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승소한 한 건의 재산규모는 300억 원대. 이게 친일파 후손 것이 된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재심 제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광복회가 재심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했는데 5년 동안 요구했는데. '성실히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보내오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5년여를 다 보냈다는 것.

<http://www.hankookilbo.com/v/2f88f242aeeb4b3fab4bbbad32ca6d8>

친일과 정권에서 기대할 걸 기대하지야지.

## [한겨레] 2001년 국편 공식자료엔 “국정 교과서 탓 역사 교육 황폐”

“(국정 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보다도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 크게 후퇴했으며,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기상천외의 신학설을 처음 선보이는 등 편견과 오류투성으로 국사교육을 중대한 시련기로 몰아넣었다.” 국정 교과서 제작의 주체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과거 공식 저작물에서 국정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확인됐다. 정부·여당 보고서 등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명분 없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정화로 인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지적한 부분이다. “(국정화 이후) 교과서는 거의 성경이나 교관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언제나 옳은 정답으로 주입과 암기의 대상이 되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을 되뇌는 정답형의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역사 교사는 무조건 암기하는 대상으로서의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수험 안내자나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말단 관리와 같은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게 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4256.html>

## [동아일보] [최영훈의 법과 사람] ‘구시대적 영수회담’도 해보라

최영훈 수석 논설위원 칼럼이다. 묘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108분간 했다.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 한 암담함을 느꼈다니 세상사 백팔번뇌임을 실감케 한다.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다. 노 대통령이 불을 지핀 ‘대연정론’을 둘러싼 담판이 주요 의제였다.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받아주면 대통령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넘기겠다는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이 “한번 내각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자, 박 대표는 “앞으로 아예 그런 말씀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이후 대연정론은 힘을 잃었고, 박 대표는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혔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영수회담의 승자는 박 대표였다.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지금은 여당 총재를 겸하던 대통령이 오너 지위의 야당 대표와 밀담하던 시절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나는 행정부의 수반이지 여당의 영수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에 거부감을 보인 사실상 첫 집권자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독대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동렬에 서는 야당 대표에게 남는 장사라는 경험도 작용했을 법하다. 권력을 쥔 사람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잘 하지 않는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이다.

“양보는 권한이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은 양보할 것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 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의 말이다. 지금 야당은 무소불위다. ‘역사 교과서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면 야당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는 ‘구시대적인 영수회담’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24/74355636/1>

## [중앙일보] “99번 울어도 100번째만 웃으면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22일 ‘5자 회동’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23일엔 기자들에게 “(당·청이 하려는) 개혁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어 우리는 허파가 뒤집어지려 한다”고 했다. 앞서 21일엔 “박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힘들다”고도 했다.

이런 김 대표에게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내년 총선 공천 물을 놓고 당·청이 충돌했던 지난 1일 당 의원총회에서 그는 “청와대가 당 대표를 모욕했다. 오늘까지만 참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이랬던 김 대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비박근혜계에선 그래서 “성격이 무른 ‘무대(김 대표의 별명)’가 또 박 대통령에게 완전히 밀렸다” “내년 공천 때도 보나마나다”란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요즘 사석에서 이런 답을 한다고 한다. “99번 울어도 100번째만 웃으면 된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청와대와 틀어질 필요가 없고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선거에서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olink/18473987>

전략적 행보라는 말이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오도하는 것도 설마 전략적 행보는 아니겠지?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온다.

### ■ 뉴스의 재구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현행 학생들이 배우는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며 10월 7일과, 8일 그리고 19일에 잇따라 사례를 들었는데.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거짓말. 현행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

김무성은 인용의 왕. 2012년 대선 때는 어땠나.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읽었다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김무성이 읽은 이 내용은 국정원이 작성한 대화록과 거의 일치. 그러나 NLL을 포기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터.

한편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불법적으로 기록물을 훔쳐 본 것 아니냐는 시비는 확산되고. 출처를 묻는 검찰과 취재진 질문에, 김무성은 짜라시에서 봤다고 응색한 답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김무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김무성 발언)

## [한겨레] 국방부, 한국이 낸 분담금으로 ‘돈놀이’…세금도 안 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한국 보수의 현실. 이 기사를 통해 또 짚어본다.

국방부가 최근 “‘지난달 10일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공식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6월 ‘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 소유 은행인지, 민간은행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지 1년3개월 만에 답변해온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는 해외 주둔 미군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미국 민간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매년 내는 방위비분담금은 이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다. 논란은 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다 쓰지 않고 적립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적립금이 2008년 10월 1조1193억 원, 2013년 8월 7100억 원, 2014년 1월 6210억 원, 2015년 10월 3900억 원에 이른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이자소득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간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009년 국가를 상대로 낸 ‘방위비분담협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금융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 뱅크는 2006~2007년에만 방위비분담금을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예치해 566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방위비분담금 적립금이 처음 생겨난 2002년부터 따지면 총 이자수익 규모가 3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는데 소득세 12%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만 못해도 열추 300억~400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적립금을 예치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자수익을 남긴 ‘커뮤니티뱅크’(CB)가 “미 국방부 소유”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미 정부가 한국이 매년 군사 건설을 위해 주는 돈으로 편법적인 ‘이자놀이’를 해왔음을 시인한 것인데다, 미국 국방부 소유 운운하는 점은 이자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4250.html>

## [조선일보] T-50 우즈벡 수출, 미국 반대로 무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수출 협상을 벌였으나, 최근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및 외교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약 예상 규모는 12대 4억 달러(약 4500억 원)어치였다.

T-50은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됐다. 항전(航電) 장비, 엔진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미국산이다. 이 때문에 미 무기수출통제법 등의 적용을 받아 수출은 물론 외국에서 전시할 때도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AI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공군은 우즈베키스탄에 T-50을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엔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사교육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T-50의 경공격기 모델인 FA-50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4/20151024025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4/201510240252.html)

## [조선일보] [사설] 軍과 靑 안보 라인의 잇단 거짓말, 언제까지 국민 속일 건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년 9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KFX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계약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0%나 삭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술 이전 무산과 예산 삭감으로 KFX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군과 청와대는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했다.

관련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주무 부처인 방사청과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까지 누구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김관진 실장은 KFX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차기 전투기 후보였던 F-15SE 대신 F-35가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장관 재임 당시 핵심 기술 이전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작년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보고받았다. 미국의 공식 통보가 온 지난 6월 이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 결과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사실을 이달 방미(訪美)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KFX 사업을 초기부터 챙긴 핵심 당사자이자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다.

내년 KFX 예산이 1618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948억 원이나 삭감된 경위도 의문이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술 이전 무산 사실을 알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난맥상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에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군과 청와대 안보 라인은 기술 이전이 무산되고 예산이 삭감돼도 숨기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 효과를 부풀리다 이전 무산 사실을 5개월이나 숨겼고, 외교안보수석실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동했다. 국방부는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성 장관의 ‘자위대 북한 진입’ 관련 발언을 발표 내용에서 빼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거짓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제 군과 안보 라인이 뭐라 해도 믿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이라는 KFX 사업을 맡길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3/201510230342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3/2015102303429.html)

## [동아일보] [단독] 청와대 대변인에 정연국 MBC 국장 유력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에 정연국 MBC 시사제작국 국장(54·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정연국 MBC 국장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날 MBC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 출신인 정 국장은 중앙대를 졸업한 뒤 MBC에 입사해 런던특파원, 기획취재부 부장, 사회2부 부장, ‘100분 토론’ MC 등을 역임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24/74355736/1>

MBC가 2012년 5월17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권재홍 부사장이 MBC제1노조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이날 톱뉴스로 전파를 탔다. 권재홍 본부장을 대신해 17일 뉴스데스크 임시 앵커를 맡아 뉴스 오프닝에서 “어젯밤(16일)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한 사람이 바로 정연국 국장이다. 그는 김재철 사장 아래에서 MBC의 기조를 그대로 지켜 방송한 사람이다.

청와대 호출이 있으면 득달같이 징발되는 이런 현실. 지상과 방송 중견 간부라면 언론인은 언론인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가.

## [서울신문] [커버스토리] 아군일까? 적군일까? 때려맞춰!

서울신문 취재팀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6·25 유해 발굴 현장에 참여한 전직 감식관·전역병 등 3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발굴 현장에서 적군 유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아군 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군 유해 숫자를 늘리기 위한 조작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발굴된 6·25 전사자 9800여구의 피아 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국립현충원과 파주 적군묘지에 아군·적군이 뒤바뀐 채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이다.

전직 국유단 감식관은 23일 “태생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었고, 아군을 많이 찾아야만 존재가 입증되는 구조”라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충원에 적군 유해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신원 확인 유해는 현충원에 2100여구, 국유단 유해보관소(국선재)에 6400여구가 있다. 국유단 출신의 한 인사는 “현충원 현충탑 무명용사실에 화장된 유해는 당연히 아군이어야 하는데 기록에 적군이라고 나온 걸 내가 본 것만

4구"라면서 "적군이 왜 이곳에 있다"고 물었더니 간부들이 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유단체 측은 이를 거부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24001024>

## ■ 날씨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이자 주말인 오늘, 중부 지방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다.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 모처럼 전국에서 미세 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만 많거나 흐리겠고 기온이 갈수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강릉·대구 23도, 창원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 뒤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간브리핑은 "우리 가족은 17년째 세계여행 중"이란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한다.

"여행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과 삶을 공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17년째 두 자녀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살고 있는 김현성(45), 남혜용(47)씨 부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으리으리한 집도 번듯한 직장도 없이 떠돌이처럼 사는데도 이들은 "행복하다"고 했다. 아들 김진(19)군과 김슬(16)양도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한국을 떠난 이 가족은 어떻게 행복을 찾았을까.

김현성씨 가족은 '주거형 여행'을 하고 있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일본, 독일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살았다. 오대양 육대주를 몇 차례나 돌고 또 돌았을 시간이지만 이 가족이 여행한 나라는 아직 30개국도 안 된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보험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건 1998년 외환위기였다.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껴 사표를 내고 멕시코로 향했다. 언어가 통하는 나라를 우선으로 찾은 결과였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함께 전공한 아내와 단돈 300달러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시작은 양말 노점 장사였다. 2001년 미국으로 건너 가선 일급 50달러의 콘테이너 잡부로 일했다. 아내 남씨는 청바지 회사에 취직했다. 남씨가 다니던 청바지 회사가 급성장하고 김씨도 창고 총감독이 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5년여간 고생한 끝에 얻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또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가족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한 대륙에 한 나라씩 여행을 다니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대륙을 옮겨 다니는 사이엔 몇 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며 향수를 달래고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줬다.

2007년 중국으로 떠난 가족은 남반구를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짐을 싸 뉴질랜드로 향했다. 지루할 만큼 평온한 나라에서 2년 넘게 살던 부부는 애니메이션에 빠져 일본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고민도 없이 오사카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3년 전 스페인으로 가려던 계획이 틀어져 자리를 잡은 것이 베를린이다.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도 단단해져 갔다. 남씨는 "어린 나이부터 돌아 다녀서인지 '내가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를 구사한다. 그 중 5개국어는 현지인 수준이다.

김현성씨는 "일을 안 하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지금 불행하게 살지 말고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았던 것도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소통했기 때문이었다. "돈, 명예, 권력, 승진 같은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삶 사이에 저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행복합니다. 가족과 여행하는 것이 청년 시기의 꿈이었는데 그걸 이뤘으니 이제 세상을 다니며 보고 배운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af03d90b3f2244eaa952070518ecc823>

### :::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코너 공화국 논평 원고

지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청와대의 주인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이종걸의 대화 녹음 시도와 문재인인의 교과서 시비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인내의 달인 아니, 개 견(犬)자해서 인내의 달건 김무송에게 "쫄쫄쫄 쫄" 하는 참치 말고 물어라"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소신은, 청와대를 박정희 각하의 대를 잇는 박 씨 왕조의 왕궁이라 여기는 것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며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집무 및 거처공간이며 야당 대표와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인식하려는 문재인 이종걸은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막서기로 잡아버리고 흥두개로 뺏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천추의 용납 못할 망나니임이 확실하다.

과거 이년 그년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박근혜 동지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할 이종걸은 "녹음해도 되냐"며 박 동지를 꼬나보고 도발하는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김무송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서 이종걸을 2중 격투기로 해서 걸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무송은 또한 문재인에게 "빠가야로"를 외치며 주먹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14개월 방위 출신인 탓에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에게 X나게 맞아 뺨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부친의 뜻에 따라 영광스럽게도 야스쿠니 신사에 보내 전범들과 합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헬조선 정부의 그는 아래에서 박 동지의 뜻을 따르는 애국자와, 뜻을 거역하는 XX놈만 있을 뿐이다. 또다시 박 동지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출몰한다면, 상대가 누구라도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월~금 오후 6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올바른  
신앙관 확립을 위한  
살핀로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서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로마서 해설서,  
객관적 논증을 근거로  
비신자 대중의 눈높이에  
충실하게 맞췄습니다.

